전국민 AI 활용사례 공모전 시즌3 · 업무 생산성 개선

"이 과일, 지금 팔아도 될까?" 코딩 모르는 직원이 AI와 만든 매일 돌아가는 판단 시스템

신선식품을 7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작은 회사입니다. 개발자는 없고, 저도 코딩을 모릅니다. Claude Code에 말로 설명하고, 틀리면 "왜 틀렸어?"라고 물으며 업무 자동화와 과일 판매 판단 보드를 만들었고, **지금도 매일 씁니다.**

~~2시간~~ → 10분
매일 아침 쇼핑몰 7곳의 엑셀을 내려받고, 합치고, 분류하고, 보고서 만들기

43일
8/20부터 평일 49일 중 43일 실제 사용 (159회 실행)

232개
이름 그대로 넣은 파일을 14종류로 자동 판별

110품목
과일 판매 시점 매일 자동 판정
(도매 경매 하루 약 11만 건)

이 사례가 다른 점

1. **일을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판단을 바꿨습니다.** 줄인 시간으로 "어떤 과일을 언제 팔지"를 감이 아니라 공개 데이터로 매주 정하고, 실제 신상품 결정(10월 감귤·부사, 11월 후보 선정)에 썼습니다.
2. **한 번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실무에서 돌아갑니다.** 회사 PC가 매일 아침 스스로 데이터를 모아 보드를 갱신합니다. 실행 기록을 2~3쪽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3. **AI를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AI가 낸 숫자의 오류를 현장 감각으로 찾아 고쳤고, 발주 확정·광고비·가격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사람이 합니다.

만든 사람과 도구

현업 이커머스 담당자 1명 · 개발자 0명 · Claude Code (AI 코딩 에이전트) · 네이버 데이터랩 · 전국 공영도매시장 경매 API · KAMIS 농산물유통정보

01 2시간이 정말 10분이 됐나요?

하는 일은 같고, 사람이 손대는 단계만 줄었습니다.

전: 매일 아침 손으로

1. 쇼핑몰 7곳에 들어가 주문·광고 엑셀을 하나씩 내려받기
2. 쇼핑몰마다 다른 양식을 열어 열 순서 맞추기
3. 파일을 한 장으로 복사·붙여넣기, 날짜 겹침 확인
4. 공급처별로 주문을 다시 분류
5. 매출·광고 보고서 표를 손으로 갱신

약 2시간

후: 파일을 던져 넣고 더블클릭

1. 쇼핑몰에서 파일 내려받기 (이 단계만 남음)
2. 폴더 하나에 이름도 안 바꾸고 넣기
3. 「일일업데이트」 더블클릭 → AI가 만든 프로그램이 파일 안을 열어 **어느 쇼핑몰, 무슨 자료, 며칠치**인지 스스로 판별
4. 날짜별로 합치고, 같은 파일을 두 번 넣어도 중복 없이 최신화
5. 보고서·웹 화면까지 자동 갱신

약 10분 (실행 자체는 3분)

실제 사용 기록 (2026-08-20 ~ 10-27, 프로그램이 남긴 로그 집계)

자동 판별한 자료	파일
토스 주문·광고·정산	71
쿠팡 주문·광고·정산	68
지마켓·옥션 주문·광고·정산	42
11번가 주문·광고	28
카페24·오늘의집·테무 주문	23
합계 (14종류)	**232**

```
[2026-10-20 09:41] 📄 새 성과 보고서 (22).xlsx
  → 토스 광고 · 10-19 (1일치) ✅ 추가
[2026-10-20 09:41] 📄 주문통합검색 (10).xlsx
  → 지마켓·옥션 주문내역 · 10-19 ✅ 백업 후 합침
[2026-10-20 09:41] 📄 DeliveryList(2026-10-20)_(0).xlsx
  → 쿠팡 주문내역 · 10-19 ✅ 백업 후 합침
[2026-08-20 09:33] 📄 아무이름.xlsx
  → 토스 광고 · 08-19
  ⏭ 이미 들어 있는 날짜 — 건너뜀
    (중복으로 더해지면 매출이 부풀려지므로 막음)
[2026-10-27 10:03] 보고서를 다시 만듭니다...
  ✅ 마스터 3종 · 엑셀 보고서 · 대시보드
  ✅ 광고 평가 · 체험단 기록 · 웹 자동 업로드
```

파일 이름이 '새 성과 보고서 (22)', '아무이름'이어도 파일 안을 열어 어느 쇼핑몰의 어떤 자료인지 스스로 판별합니다. 로그 원문에서 일부만 줄였습니다.

02 정말 매일 쓰나요? 하루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출근 직후 3분과 마지막 확정 버튼뿐입니다.

출근 직후 사람 3분

파일 넣고 「일일업데이트」 → 매출·광고 보고서 갱신. 「오늘의 할일」 화면이 빠진 파일, 오래된 자료를 자동으로 짚어 줌

매일 10:30 자동

회사 PC가 스스로 도매시장 경매 기록·KAMIS 시세·네이버 검색 수요를 모아 과일 진입 보드를 갱신하고 웹에 게시

매시간 자동

토스쇼핑 판매 캠페인(기획전)에 새 공고가 뜨거나 신청 마감이 다가오면 휴대폰 메신저로 알림

발주 AI 준비 사람 확정

공급처별 발주 파일 정리와 업로드까지 자동, 마지막 확정 버튼만 사람이 누름

회사 PC의 실제 실행 기록 (과일 보드, 매일 10:30 자동 실행)

```
===== 2026-10-19 10:30:01
--- fetch_auction_prices.py (종료코드 0)
2026-10-19  132,179/132,179행 → 613개 품종  (31초)
===== 2026-10-20 10:30:01
2026-10-20  115,905/115,905행 → 607개 품종  (23초)
===== 2026-10-21 10:30:01
2026-10-21  108,843/108,843행 → 608개 품종  (24초)
===== 2026-10-26 10:30:01
2026-10-26  115,377/115,377행 → 602개 품종  (28초)
===== 2026-10-27 10:30:01
2026-10-27  106,492/106,492행 → 605개 품종  (19초)
[KAMIS] 2026-10-27 도매·소매 72행 → KAMIS\2026-10-27.json
===== 2026-10-28 (오늘)
[과일 진입 보드] 경락가 37거래일 (2026-09-15 ~ 2026-10-27)
[과일 진입 보드] 110개 품목 → 과일_진입보드.html
  판매: 귤(오름), 딸기(오름), 단감(오름), 부사사과(보합), 유자(적음) …
  컨택: 레드향(보합), 한라봉(보합), 천혜향(적음), 금귤 …
  준비: 참외(내림), 수박(내림), 오렌지(오름) …
--- publish_fruit_board.py (종료코드 0)
웹 업로드 완료
```

실행 로그 원문 일부. 2026-10-16부터 사람 손 없이 매일 실행 중. 경로 등 일부만 줄였고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03 아낀 시간으로 만든 것: 과일 진입 보드

과일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수요가 오르기 몇 주 전에 산지에 연락하고 상품을 올려야 팔립니다.
흩어진 공개 데이터 3종을 한 화면에 묶어, 110개 품목을 매주 같은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PC 화면: 이번 주 「지금 팔 상품 / 지금 연락할 상품 / 다음 준비 / 수요 내림세」



휴대폰에서도 바로 확인

판단 기준은 사람이, 적용은 AI가

칸	기준 (제가 현장 경험으로 정함)
지금 팔 상품	검색 수요가 그 품목 최고치의 50% 이상, 또는 30% 이상이면서 오르는 중
지금 연락할 상품	수요가 최고치의 40%를 넘는 주를 '시즌 시작'으로 보고, 그 4주 전을 산지 연락 마감으로 계산
다음 준비	연락 마감이 7~12주 뒤
수요 내림세	최고치를 지나 내려가는 중

묶은 데이터

데이터	무엇을 보나	규모
네이버 데이터랩	품목별 주간 검색 수요 3년치, 과일 인기 검색어	110품목
전국 공영도매시장 경매 API	품종별 낙찰가와 반입량 (지난주 대비)	하루 약 11만 건, 600여 품종
KAMIS 농산물유통정보	평년·작년 같은 날 대비 도매·소매 시세	하루 70여 항목

품목마다 딱 한 칸에만 들어가서, 보드를 열면 이번 주에 할 일이 바로 보입니다. 출처: 네이버 데이터랩, 공공데이터포털(전국 공영도매시장 경매 정보),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04 결과

항목	전	후
매일 엑셀 작업	약 2시간, 손으로	**약 10분**, 더블클릭 한 번
과일 110품목 시즌 판단	품목마다 사이트 3곳 검색, 사실상 감	보드 한 번 열면 끝, 매일 자동 갱신
신상품 결정	작년 기억	보드 근거로 10월 감귤·사과(부사) 출시, 11월 후보(유자·딸기 등) 선정
팀 회의	"작년에 잘 팔렸으니까"	"왜 이 과일이냐"에 화면을 보여 주며 설명

05 나만의 방식: AI를 믿되, 검산합니다

AI가 만든 숫자를 그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믿고 씁니다.

숫자 오류 발견 '올해 vs 예년' 비교값이 거의 모든 품목에서 -60%대로 나왔습니다. 수요가 준 게 아니라 데이터 기준이 달라서 생긴 오류였습니다. 이후 판단은 3년 평균으로만 합니다.

검색어 함정 발견 '사과'는 검색 1위인데 보드는 '다음 준비'로 분류했습니다. 통합 검색어가 저장 사과 수요에 끌려간 탓이라, 이제 품종(부사·감홍 등)별로 따로 봅니다.

실수는 규칙으로 파일명은 20일인데 내용은 18일치였던 일, 열 순서가 바뀌어 날짜가 '2804년'으로 들어간 일. 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을 문서에 적고, AI가 매번 그 문서를 먼저 읽게 했습니다.

추정보다 빈칸 틀릴 수 있는 추정값은 지우고 실제 데이터만 보여 줍니다.

마지막 버튼은 사람 발주 확정, 광고비, 가격 변경은 AI가 준비만 하고 결정은 제가 합니다.

06 누구나 따라 하려면

1 매일 반복하는 일 하나를 AI에게 맡겨 시간을 법니다

2 번 시간으로, 늘 감으로 하던 판단 하나를 고릅니다

3 그 판단에 쓰는 정보가 어디 있는지 적습니다. 대부분 공개 데이터입니다

4 "이 데이터로, 이 기준이면 이렇게 나눠 줘"라고 말로 설명합니다

5 이상하면 숫자를 의심하고 원인을 묻습니다. 현장 감각이 최고의 검산 도구입니다

07 개인정보·출처·책임 있는 활용

주문 자료에는 고객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함보다 먼저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공개 화면은 공공데이터만	웹에 게시하는 과일 진입 보드는 공개된 공공·통계 데이터만 씁니다. 고객 주문 정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출력 금지 규칙	AI가 매번 먼저 읽는 규칙 문서에 "고객 이름·주소·연락처는 출력하지 않는다, 주문번호는 끝 4자리만 쓴다, 원본 주문 파일은 외부에 올리지 않는다"를 적어 두었습니다.
대내용·공유용 분리	원가·마진·거래처가 들어간 보고서는 대내용으로만 쓰고, 밖에 보여 주는 자료는 따로 만듭니다. 이 제출 자료에도 매출액·원가·거래처·고객 정보는 넣지 않았습니다.
비밀 값 관리	API 키 같은 비밀 값은 채팅창에 붙여 넣지 않고 PC의 설정 파일과 보안 저장소에만 둡니다.

부정확한 정보와 편향을 막는 장치

추정 금지	데이터가 없으면 AI가 그럴듯한 값을 채우지 않고 빈칸으로 둡니다. 입금 예정액처럼 틀리면 위험한 숫자는 실제 정산 자료가 있을 때만 보여 줍니다.
사람이 검산	AI 계산 오류(예년 대비 -60% 일괄 표시, 통합 검색어 왜곡)를 현장 감각으로 찾아 고쳤습니다(5쪽).
결정은 사람	발주 확정·광고비·가격 변경처럼 되돌릴 수 없는 일은 AI가 준비만 하고 사람이 확정합니다.

데이터 출처와 사용한 AI

구분	이름	사용 범위
공공·통계 데이터	네이버 데이터랩 쇼핑인사이트 (네이버 오픈 API)	품목별 검색 수요 추이, 인기 검색어
	공공데이터포털 전국 공영도매시장 경매 정보 API	품종별 경락가·반입량
	KAMIS 농산물유통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년·작년 대비 도매·소매 가격
회사 내부 자료	각 쇼핑몰 판매자센터에서 내려받은 주문·광고 엑셀	사내 보고서 자동화에만 사용 (외부 공개 없음)
AI 도구	Claude Code (Anthropic)	프로그램 제작, 오류 원인 찾기, 이 제출 자료 정리

이 자료의 화면 캡처는 모두 본인이 만든 보드와 프로그램의 실제 화면·로그입니다. 문서 정리에 AI를 썼고, 모든 숫자는 실제 실행 로그와 대조해 확인했습니다.